

SKT, 이통사 최초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

**-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 통해 고객에게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 제공**

**- AI 기반 재무건강진단 서비스 올 하반기 오픈… 개인의 자산 현황 진단 및 처방**

**- 향후 A.(에이닷) · T우주 등 SKT 대표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 확장할 것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 |

**[2022. 7. 7]**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[www.sktelecom.com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은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(이하 마이데이터)의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.

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·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(금융 상품 가입 내역 · 자산 내역 등)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.

SKT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하고 바로 본허가를 신청했으며,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.

SKT는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생활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.

먼저, SKT는 올 하반기 중 개인의 자산 관리 현황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최적의 처방을 제안하는 AI기반 재무건강진단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.

이를 위해 SKT는 한국 FP협회와 협업해 학계 가이드라인 및 공인재무설계사(CFP)의 검수를 거친 모바일 환경 특화 재무진단 도구를 개발했다.

또한, 향후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.(에이닷) · T우주 · T멤버십 등 SKT의 대표 서비스와도 연계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예정이다.

장홍성 SKT 광고/데이터 CO담당은 “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함으로써 SKT의 통신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금융데이터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”며, “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**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정 욱 매니저(02-6100-3881)**

**<끝>**